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신념 지키세요”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역사학교’ 광복절 80주년...광주백범기념관 탐방 어린이 등 봉사자 30여명 역사인식 함양

“광복은 해방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 지에 대한 질문이고 첫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 동구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역사 탐방 교육을 통해 의미를 되새기고 더 넓은 봉사를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3일 어린이·청소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백범기념관 탐방 교육을 실시했다.

‘어름 청소년 역사학교’의 일환이자 ‘광주 역사가 대한민국 미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단순한 기념관 관람을 넘어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한 ‘내가 원하는 나라는 통일된 나라요, 자유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다’라는 철학을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사)동구자원봉사센터는 3일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린이·청소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백범기념관 탐방 교육을 실시했다. (동구자원봉사센터 제공)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시 관람을 비롯해 ‘독립만들기’ 체험,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알아보기’ 활동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세종 (14)군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신념과

삶을 전시를 통해 접하면서 광복은 해방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첫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이 되기 위해 더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재영기자



광주경찰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약속’ 캠페인 성료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WE POLICE-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약속’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우리가 치안을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전개된 이번 캠페인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치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어른들의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캠페인 기간 광주경찰은 기초질서 실천 다짐을 제출한 학급 중 10곳을 찾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생활 속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안재영기자



‘포괄2차 종합병원’ 광주보훈병원 ‘정책 공유 워크숍’

광주보훈병원은 “최근 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정책 공유 워크숍’을 열고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병원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워크숍은 이삼용 병원장 주관 하에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광주보훈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전략에 대해 의료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광주보훈병원이 올해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병원 차원의 전략적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이삼용 병원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은 병원의 책임과 기능이 확장됐음을 의미한다”며 “중등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구조 개편과 진료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협력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훈대상자는 물론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 완도군에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박종석)는 최근 완도군에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완도군은 해당 성금을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보건교육 ▲사회공헌 건강검진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전남 의용소방대, 담양 침수 피해 복구 ‘구슬땀’

담양소방서는 “최근 담양군의회소방대연합회와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가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윤중천·임영자 담양군의회소방대연합회 회장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가 동참하면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에는 화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비롯한 40여명의 대원이 장평면과 고서면 일대에서 침수 주택 잔해물 정리, 폐기물 수거, 비닐하우스 복구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이튿날에는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을 포함한 130여명이 고서면, 대전면, 무정면, 봉산

면 일대에서 ▲침수 가구 내 진흙 제거 ▲가전·가구 반출 ▲오염물 청소 ▲하우스 내부 정리 등 복구 활동을 이어갔다.

윤중천 담양군의회소방대연합회장은 “전남 의용소방대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총 348명의 대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 큰 도움이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땀 흘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재난 대응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규기자

여수경찰, 현장 범죄 대응력 강화 사례회의

여수경찰서는 3일 “지난 1일 경찰서장 주재로 관계 기능 과장과 지구대·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려 살해한 의정부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 등)를 검토하고, 지역 내 유사 사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박규석 여수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성과 강력 범죄화의 가능성이 높다”며 “반



복·중점 사례 관리를 통해 대응 체계를 견고히 하고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목포해경, 폭염 속 신안 섬마을 화재 진화

목포해양경찰서는 3일 “지난 1일 오전 10시55분께 신안군 흑산면 대둔도의 한 폐기물 수집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유관기관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무사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대둔도는 흑산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외딴 섬으로, 소방관서가 없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신고 접수 직후 해경은 흑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소방과 경찰, 면사무소 직원 등 진화 인력을 이송하고,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3천급 경비함을 급파해 소화작업을 지원했다.

해경과 유관기관, 마을 주민 30여명의 합동



진화작업 끝에 불은 오후 1시33분께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목포=정해선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농협금융지주 등 생물다양성 보전-종자산업 발전 협약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3일 “지난 1일 NH농협금융지주, NH농우바이오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재난으로 농업과 생태계 위협이 커지자 국가 생물다양성과 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연구 ▲산업 수요 기반의 생물자원 연구 방향 제안 ▲생물의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 기능 연구 ▲공동 홍보 ▲ESG 세미나 및 교육 활동 등 실질적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생물자원의 조사·보전·산업화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에 앞장서고, ESG 기반의 민관 협력 모델 구축에도 힘을 보태겠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 생물자원과 종자산업은 미래 농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종자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장흥경찰, 정남진 물축제장서 야간 순찰

장흥경찰서는 “최근 지역 여름 대표 행사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 현장에서 읍내권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읍주·읍연,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선도 등 기초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경찰과 자율방범대는 순찰과 함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기초질서 준수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

장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기초질서 캠페인과 공동체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욱기자



여수해수청,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수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여수·광양항에 대량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여수신항에서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정화활동에는 여수해수청을 비롯해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해경, 여수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여수항도선사회, 광양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등 50여명이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만조 시에는 집게채를, 저조 시에는 뜰채와 삽을 활용해 수면과 경사면에 쌓인 해양쓰레기 약 30t을 수거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부음

▲이길한씨 별세, 김영록(전남지사)씨 빙모상 = 발인 5일(화) 오전 8시30분 서울성모장례식장 (02-2258-5940)